

배달기사님, 어디가 아프세요?





노동력을 제공하지만
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
“**특수형태 근로종사자**”
학습지 교사, 택배기사는
대표적인 취약 근로자이다.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,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 운전 기사,
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택배 배송기사, 퀵서비스 배송기사,
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대리운전 기사 등



특수형태 근로종사의 처우 개선을
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
되었지만 실제 산재보험 적용율은
11.5%에 불과한 현실
(2016년 기준)



특수형태
근로종사자

또한
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
그동안 근로자 건강진단
대상에도 **포함되지 못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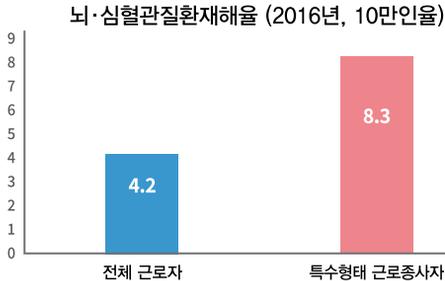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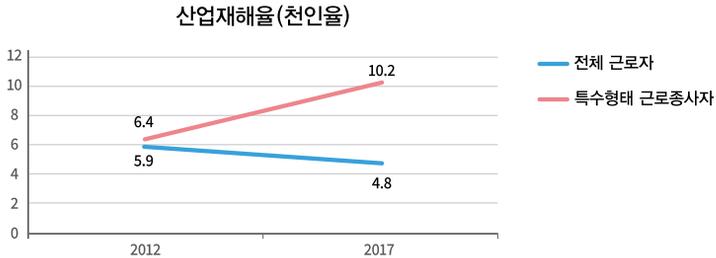




연구진들은 특수형태
근로종사자들에게 건강진단이
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
위해 이들의 **산재발생 현황**을
살펴보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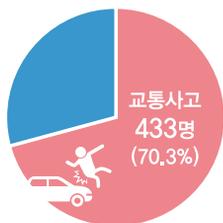
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재해율은 전체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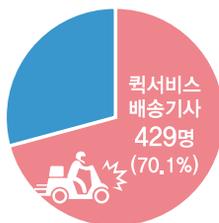
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율 출처 : 근로복지공단 산재등록자료(내부자료)

재해 발생형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, 퀵서비스 배송기사의 재해율이 가장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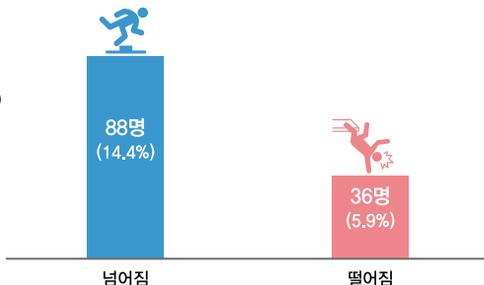
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재해 발생형태(2017)



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재해 다발 직종(2017)



특수형태 근로종사자
재해 발생형태(2017)

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율 출처 : 근로복지공단 산재등록자료(내부자료)



현황분석을 토대로
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
'기타 근로자'로 분류해
1년에 1회 **건강진단을 받는**
방안을 제안하였다.





또한 **콘크리트믹서트럭**
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
광물성분진 노출과
야간작업에 대한
'특수건강진단'을 받는
방안을 제안하였다.



출처

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 연구
(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8)

※ 본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